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환경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3일, 화)에 참여하십시오.
- 트윈사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29일(목) 공동체학교를 방문하였고, '없이있는마을' 교사들이 3일(화) 공동체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꾸러기학교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가 5일(목)-6일(금)에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을 마치고 6일 귀국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 생일 감사 )  
이승호 집사 ( 어머니 생신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김성흠 청년 ( 생일 감사 )

산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0131-021-578132 구 영풍문고 앞  
동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2 호

2025년 6월 1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피조물을 돌보는 일

얼마 전 지구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63m가량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바닷가 주변의 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늘어나며,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삶과 미래 세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대한민국의 장마 기간이 30일 가량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1.5배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후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써의 역할을 버리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돌보고 보존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에게 처음으로 맡겨주신 임무는 바로 이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와 건강,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본연의 의무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한 행위는 돌보는 쪽 보다는 파괴하는 쪽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나 플라스틱 사용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과도한 소비문화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소비재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물질을 만들어 내며 자연과는 더욱 동떨어진 것들이 되었고, 지구를 더럽히는 쓰레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자연 파괴를 할 수 없고, 그 일을 막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환경주일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청지기로써의 자신들이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환경 보호를 결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라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단지 추상적이거나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일이라면 실천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것을 피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소비하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청빈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운동이며, 근본부터 청지기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과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 한주간의 말씀

“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  
< 역대지상 29장 1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405, 268 / 438  
기도 :  
성경 : 레위기 6:1-7  
제목 : 속건제에 관한 규례

### < 레위기가 갖는 의의 >

- 1) 레위기는 율법서의 세 번째, 출애굽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 2)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 3) 따라서 레위기는 신앙의 시작과 갱신의 방법이 예배인 것을 말한다.

### < 제사의 종류와 제물 >

- 1)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이다.
- 2) 모든 제사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반드시 사용하였다.
- 3) 그러므로 예배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재현이며,  
예배자는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

### 1. 속건제에 대한 규례 <6:1-7>

- 1)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What)
- 2) 사람에게 대한 잘못도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 낳은 죄이다.(Why)
- 3) 사람에게 대한 잘못은 보상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한다.(How)

## 작은 실천, 큰 믿음 - 영화 <까모메식당>을 보고

<까모메식당>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자, 닳고 싶은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북유럽 핀란드 헬싱키의 조용한 거리 한쪽에 자리한 작은 일식당을 배경으로, 특별한 사건 없이도 잔잔하게 볼 때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사치에는 낯선 땅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합니다. 손님이 없고 외로운 날들이 이어져도,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화려한 성공보다 성실함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녀의 진심 어린 성실함에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식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까모메식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길 잃은 여행자, 마음의 상처를 안은 이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사치에를 찾아옵니다. 사치에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줍니다. 특별한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정갈한 한 끼의 식사와 따뜻한 눈빛 속 환대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히브리서 13장 2절)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치에는 일상의 리듬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 수영을 하며 몸과 호흡에 집중하고, 저녁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정돈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니라 하루를 정성스럽게 사는 삶의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물에서는 불필요한 생각을 잠재우고, 밤에는 굳어진 몸을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고전 6:19)라는 말씀처럼, 몸을 돌보는 일 또한 신앙의 표현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안고 떠돌던 이들이 식당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일으킵니다. 대단한 사건이나 기적 없이도,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피어나는 성실함과 환대, 따뜻한 정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석구석에 스며든 사랑이 곧 하나님 나라의 향기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영화, <까모메식당>을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따뜻한사랑방 우창숙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33 : 1-5  
37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b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12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정태일 목사

역대지상 29 : 16-17 인도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143) 새작사랑방

정태일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4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한호남 정승희 / 봉헌위원 : 이재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넘치게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아멘.

###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7> 고백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훗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왕상15:5개역>

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실까? '정직'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일치하는 개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정직'이 '정의', '공의'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정의는 사람관계에서의 올바름을 말하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직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직한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조민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후끈후끈 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면서 여름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햇볕은 뜨겁고, 아이들의 옷이 짧아지는 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꾸러기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입니다.

이번 주에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 선생님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몸은 어떻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체에 호기심도 많고, 장난도 치지만 우리의 소중한 몸이라 인지하고 놀입니다.

오랜만에 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우거진 나무 아래는 시원하고, 공동체에서 보지 못한 나무와, 풀 그리고 벌레 친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호기심 많은 눈으로 사방을 보면서 갑니다. 보물 찾는 탐험가처럼 씩씩하게 가는 친구들에게 숲은 제일 신나는 놀이터 중 하나입니다.

5월31일이 단오라 그 전날에 단오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우선 단오책을 읽는데 단오의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올해는 단오선 만들기와 그네타기를 하고, 오후에 창포물로 머리 감고, 수리취떡을 먹었습니다. 단오를 즐겁게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5월의 마지막 주도 알차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학기 새롭게 시작된 LTSS(Listening, Thinking, Speaking, Sharing) 수업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주제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손짓, 표정과 행동, 그리고 자세 등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돌아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조를 나눠 상황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주제를 마감하며 평소에 사용하는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예쁜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분이 안 좋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때릴 때가 있었는데 조심해야겠다. 친구를 더 사랑해야겠다는 등 마무리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상황극을 관람하며 어른이 먼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말들로 더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어느덧 봄철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날씨가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학년별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쟁이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틈틈이 조사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귀중한 경험입니다. 필요에 따라 누군가는 자전거를 연습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친구들 앞에 선보일 요리를 공부하기도 한답니다.

목요일 오전에 대전 트윈사성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부부와 학생 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장기를 선보이기도 하며 삶의 모습을 나누는 좋은 한 때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는 대선과 현충일이라는 공휴일도 있고, 미국에 있던 4학년의 귀국, 6학년의 6월 모의고사 같은 굵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날에 알맞게 특별한 시간들을 함께 가지는 것과 함께, 학생회 주도로 종강발표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만큼, 하루하루 뜻깊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4학년이 끝까지 잘 지내다가 무사히 귀국하도록, 그리고 6학년이 모의고사를 통해 더 발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 공동체에서 새롭게 배우며 성장하기

밭일을 하다보면 함께 일한다는 것이 성숙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곤 합니다.

밭고랑에 비닐 씌우는 작업, 고춧대에 줄을 묶는 작업 등등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세 사람이 함께하면 왔다 갔다 하는 동선도 줄이고, 작업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 하면 심리적으로도 일의 양에 질리기도 하고, 힘도 들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재미도 있고, 도전 의식도 생기고, 언제 다 했는지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미와 보람도 찾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일할 때도 방법에서 의견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목표가 같기에 스스로들 의견들을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따라주게 되는 것이지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연습과 훈련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작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돌이키고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조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므로 마음을 모으는데 한 몫을 감당한다는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공동작업에 참여하다 보면 서로가 깨달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름의 깨달음에 대해 배우고 취합하는 자세가 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느낍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 판단이 언제든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맡겨진 역할을 홀로 오랫동안 감당해왔던 지체들을 인정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결과, 열매를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88, 543, 455

성 경 : 마가복음 11:15-19

말 씬 :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각국의 지도자들이 국제 평화와 협력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시켜주시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화합과 일치역의 역할>  
성경적 기준에 따라 사회를 바라보며 화합과 일치의 모범이 되어 공동체로써의 본이 되는 교회들 되도록.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1) 6월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 2) 멧쟁이 4학년과 목사님 미국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 3)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드디어 밭에서 나는 작물들로 공동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무로 김치도 담고, 상추도 마음껏 먹고 쪽파는 대가리는 다음 농사를 위해 보관해두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식사로 나눌 것을 생각하니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꽃동산 만들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만발한 꽃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는 대전에 있는 트윈사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공동체를 방문하여 많은 힘을 얻고 가셨습니다.

6월에는 많은 손님들이 공동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는 분들이나 섬기는 분들 모두가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